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디지털 아트’시대의 달



박영택

〈미술평론, 경기대교수〉

문득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았다. 둥근 달이었다. 인사동에서 이런 저런 전시를 둘러보다가 귀가하는 늦은 밤이었는데 그만 달을 보자니 모르게, 방금 전까지 보고 답이 없었던 수많은 이미지들을 슬쩍 내려놓았다. 그렇게 달을 보면서 한강 다리를 건넜다. 저 달이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다. 고개를 들어 달을 보다 문득 저 달이 진짜 그림 같고 예술 같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전까지 온갖 인공의 아름다움이나 디지털 감각으로 가득찬 작업들을 보다가 저 달을 본 것이다.

사실 인간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만 자연만이 그 아름다움을 생산해내고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가닿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자연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은 결국 자연을 통해서이다. 자연에 이미 들어와 박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인간이 뒀고 예술의 일이었을 것이다.

자연만이 아름다움을 생산

생각해보면 아름다움이란 인간에 속해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으로 간다. 그곳에 인간에게 부재한 절대적인 미가, 숨막히는 아름다움이, 현기증 나는 신비가 피어난다.

그러나 사실 그 아름다움조차 인간의 뒀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발견하고자 하지만 자연은 결코 그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는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얼핏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자신의 감각을 모아 그 자연에 도달하려한다. 새삼 저 달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한다.

까만 어둠 저편에 발광하는 하나의 돌은 보이는 시선과 심장에 그대로 와 박히면서 가장 장엄한 구경거리를 선사한다. 수시로 변하는 형상과 어둠을 배경으로 환하게 번지는 빛으로 인해 달은 강력한 불거리가 되어 무한한 상상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런 면에서 밤하늘은 최초의 화폭이며 달과 별은 모든 이미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달 표면에 나타난 음영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동시에 온갖 전설과 신화를 창조해왔다. 회화와 문학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이다.

또한 어둠을 구원하고 종력에 저항 잡힌 이 현실세계 너머를 꿈꾸게 해준 것은 달이었기에 달은 늘 그리움과 동상, 희망을 비추는 거울처럼 자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 속에 어르거리는 그 누군가의 얼굴을 애타게 찾는다. 조선시대 인물산수화에는 달을 쳐다보는 선비들이 즐겨 그려지곤 했는데 이는 자연의 순환하는 이치와 질서를 깨

닫고 헤아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조명시설이 아쉬웠던 그 옛날, 창으로 휘영청 스며드는 달빛이 사방탁자에 놓인 하얀 백자의 표면에 반사되어 부서지면 방안은 마치 동실 달이 떠올라 달빛이 가득한 듯 밝고 환했다. 달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자연과의 친연성이 마냥 놀랍기만 하다. 달 향아리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과 백자의 연관성은 김환기의 그림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달은 영감과 상상력의 근원

그는 평생 달과 향아리를 그리워하고 이를 온통 과감색으로 적신 화폭에 포근히 담곤 작가다. 그에게 달과 향아리는 연인이었다. 달은 어딘지 쓸쓸하고 아련하고 슬프고 적막해야 제맛이다. 지치고 힘들고 고독한 이들이 고개를 들어 저 달을 본다. 거기 위안처럼 달이 떠있다. 세상에 속하지 못해 세상을 등지고 싶은 이들에게 달은 안식처를 제공한다.

특히나 이런 식의 삶에 대해 저항하고 슬픔의 힘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위로의 시선을 던지는 예술가들에게 달은 그 어떤 것보다 영감과 상상력의 근원으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니 지상의 그 모든 현란한 미술들이 순간 남루해 보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전남 대선공약 공동발굴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개발 사업을 선정해 제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시·도 관계자들은 광주시청에서 대선공약 발굴을 위한 첫 모임을 갖고 광주와 전남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시·도가 대선공약을 공동발굴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선 지역발전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타당성 있는 일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뚜렷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민심이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대선 결선 후보 첫 정책토론회를 광주에서 개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치권의 이 같은 흐름을 지역발

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역현안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켜야 한다. 대선 공약은 말 그대로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지역 현안사업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될 경우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지역은 문화수도 조성사업, J프로젝트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SOC 확충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안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부의 특별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역현안사업이 대선 공약화돼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현안을 발굴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순환도로 관리운영권 회수 현실화 되나

광주시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제2 순환도로 일부 구간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민간업체에 지원되는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전국 최초로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회수에 나선 것이다.

제2 순환도로 적자보전액은 엄청나다. 지난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민간업체에 지원한 보전액이 580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상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근본원인은 예산을 빚나간 영터리 구역에 있다. 광주시는 운영을 통해 광주시의 예산인구와 민자구간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 등을 산정한 뒤 운영 결과를 토대로 통행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주기로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인구는 추정치의 69%, 통행량은 73%에 그쳐 시민들의 세금을 적자보전

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민자유치 도로사업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허점 투성이었다. 부실한 용역으로 예산 통행량이 부족해져도 추정치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선 민자도로를 '거저 먹기사업'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광주시가 뒤늦게 관리운영권 회수에 나섰지만 비판을 면치 못한다. 광주시는 당초 제2 순환도로 통행량 추정치를 제시한 운영 결과가 나왔을 때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영터리 운영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화를 부른 것이다.

민자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자도로 운영사측이 반발하고 있지만 '밀바진 독에 물 붓듯' 언제까지 열세를 축출하는 없는 일이다. 광주시의 순환도로 관리운영권 회수 조치를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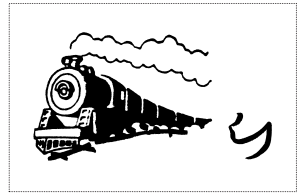
無等鼓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 있는 간이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루이 용객 10명 이하인 59곳의 문을 1일부터 닫는다. 광주·전남에서도 경전선(慶全線) 구간 중 고평·원창·구름 세역이 포함된다고 한다.

오후 2시35분 순천을 출발하는 제1975호 무궁화 열차는 원창~구름~별교~송정리를 거쳐 종착지 목포역에는 오후 5시55분 도착한다. 열차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오후 6시20분 다시 기적을 울려, 밤 9시40분 순천에 몸을 뉘운다.

별교·독막·보성·능주·화순·몽탄·함평·일로~기차가 정차하는 24곳의 역마다 사투리가 뒤섞이고, 들끓는 물건이 다르다. 얹담이며 고들뻐기며 마늘종이며 푸성귀 거리, 저녁식탁에 오를 맛·칠계·장뽕이~열차 4량/단종일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

(* 沙平驛에서), 광재구 /정기대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간이역

의료 칼럼

윤경철



눈물은 안구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사물이 뚜렷이 보이게 하고 눈의 여러 세포에 수분과 산소를 공급해 준다. 또한, 항균작용과 눈꺼풀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등 정상적인 안구표면의 유지와 시력보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건성안 또는 안구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과도하게 증발돼 안구표면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눈의 불쾌감 및 자극증상을 일으키는 눈물막의 질환이다.

현대인 괴롭히는 안구건조증

호르몬·대기오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나이가 들거나 여성은 폐경기 이후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컴퓨터·TV시청·컴퓨터 작업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환자에서건성안이 자주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눈의 뻑뻑함·모래알이 구르는 느낌·이물감·쓰라림·가려움·눈꺼풀이 무거운 느낌 등이 있다.

증상은 오후에 심해지고, 수면 중에 눈물 생성이 감소해 아침에 눈뜨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독서·TV시청·컴퓨터 작업을 할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에어컨·선풍기 등이 작동되는 실내에서도 증상이 악화한다.

건성안의 원인질환은 눈물 분비 감소와 눈물막의 증발이 증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눈물 분비가 감소하는 경우는 건성안과 구강 건조를 동반하는 쇼그렌증후군·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 화학화상이나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등이 있으며, 항히스타민제·혈압약·항우울제·파킨슨병 치료제 등의 약물에 의해서도 눈물분비가 저하된다.

고령 및 당뇨병 환자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도 눈물분비가 저하된다. 최근 유행하는 라식수술 후에 각막 감각이 감소해 건성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술 이후 수개월 후까지 지속할 수 있다. 눈물막의 증발이 증가하는 경우는 눈꺼풀 염증에 의해 눈물의 지방층 결핍·안면마비가 있는 경우이거나 쌍꺼풀 수술 후 또는 감광선안 병증 등이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눈물의 배출을 막고 오래 보존시킬 수 있는 실리콘 눈물점 막거나 전기소작에 의한 눈물점 폐쇄가 있다. 눈물점 막개는 플라젠 성분

의 일시적인 것과 실리콘 성분의 영구적인 것이 있으며, 영구적인 것은 노출형과 삽입형 등의 종류가 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는 눈물분비도 저하된다. 따라서 과로·과음·과도한 긴장·스트레스 등을 유의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전남대병원 안과교수) <전남대병원 안과교수>

기고

오승희



6월은 제52회 현충일과 제57주년 6·25전쟁 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뜻을 이어 받아 국가보훈이라는 통찰정신을 가다듬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달이라고 하겠다.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애국심과 호국정신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의 국권회복과 6·25전쟁 등에서 국가수호 그

리고 자유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한 선 호국영령의 거룩한 호국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현충일은 단순히 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시민 각자가 나라를 위해 행하여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광주에는 12,190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생활하고 있어 6월 한달을 추모의 기간, 감사의 기간,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구분하고 추모의 기간에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며

열들의 값진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2년이 못되어 6·25 전쟁을 겪게 되었는데, 1953년 휴전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1956년부터 매년 6월 6일에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지며 그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했었다.

이는 24절기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6월 6일)에는 제사를 지내는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을 반영한 것이다. 현충일에는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는 태극기의 한 폭 만큼 내려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시민이 1분간 경건히 묵념을 올리고 애국지사

현충일 추념식과 현충탑 참배 등 추모 행사를, 감사의 기간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화합과 단결의 기간에는 6·25전쟁 기념행사와 전직적 탐방 등의 행사를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오늘의 발전된 조국과 성숙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이 있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훈문화는 전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만 꽃피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위국·헌신의 소중함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경건한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광주시 사회복지국장>

늘어나는 수입쌀 국내산으로 둔갑 못하게 강력 단속

며칠전 마트에 가서 20kg짜리 쌀을 두개 사왔다. 해남 해풍맛은 쌀이라는 상표가 붙어있어 사다가 밥을 지었는데 밥맛이 괜찮았다. 상표가 붙어있고 포장지 제대로 된 쌀들은 믿을수 있지만 딱지나 기타 가공용 쌀은 과연 우리 쌀을 쓰는지 수입쌀을 쓰는지 알수가 없다.

갑시게 팔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른체 속아서 먹고 있다는 것이니 큰일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급년에는 수입쌀이 작년보다 4배나 늘어나 60만섬정도가 들어올거라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호남지역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곡창지대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시 주부들과 학교의 급식 담당자들이 60만섬이나 되는 수입쌀을 국내 쌀로 속여서 팔지 못하게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단속해주기 바란다.

작년에 수입된 쌀 16만섬이 전국 시장에 서다 소비가 됐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수입 쌀을 사용했다는 사람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국민들이 수입쌀인지 모르고 먹고 있다는 얘기다. 업자들이 수입쌀을 토종 쌀로 둔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문화시민이 공공시설을 파손하고 슬그머니 내빼서야

얼마전 누군가 술에 취해 도로변에 설치한 대형 화분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파손해서 치우려 간적이 있는데, 술취한 사람이 화분을 부수는 동안 주변 많은 시민들이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의 못된 행동을 접하고도 본인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 어제 오늘이 아니냐. 그러다보니 차량 운전 미숙으로 가로등

화분, 보행자 안전막, 도로 표지등을 파손한 뒤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도 많다.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함이나 사용의 제한 없이 이용토록 배려해준 것이니만큼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또 이같은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형세가 엄동하게 낭비되는 부담을 줄이는 길이 아니냐 싶다. ▲문서희·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인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 2부 2200-552,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